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6월 25일 서울시 9급

2016. 06. 2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꼬나풀 - 새벽녘 - 샅쟁이 - 떨어먹다
- ② 뜯게질 - 세째 - 수평아리 - 애닭다
- ③ 치켜세우다 - 사글세 - 설거지 - 수강아지
- ④ 보조개 - 솟양 - 광우리 - 강남콩

정답 ③ 표준어 규정

- ① 샅쟁이 → 샅쟁이(=샷), 떨어먹다 → 털어먹다
- ② 세째 → 셋째, 애닭다 → 애달프다
- ④ 광우리 → 광우리, 강남콩 → 강남콩

①

• **꼬나풀** : ㉠ 길지 아니한 끈의 나부랭이. ㉡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꼬나불(×)

• **새벽녘** : 날이 샅 무렵.

‘녘’은 의존 명사이므로 각각의 단어인 ‘아침 녘’, ‘황혼 녘’은 띄어 적고, ‘새벽녘, 샅녘, 어슬녘, 저녁녘, 저물녘’ 등은 합성어로 인정되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적는다.

‘녘’과 ‘녁’ 중에서 거센소리를 가진 ‘녁’만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새벽녁’과 ‘새벽녁’ 중에서 ‘새벽녁’만 표준어로 삼는다. 그리고 ‘새벽’과 ‘새벽’ 중에서 ‘새벽’만 표준어로 삼는다.

• **샅쟁이 → 샅쟁이**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단어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꼬나풀(○), 꼬나불(×)’이 있다. ‘샅쟁이’와 ‘샷’이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샷(○), 들고양이(○), 샅쟁이(×), 산고양이(×)

• **떨어먹다 → 털어먹다**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는 뜻은 ‘털어먹다’이다. 떨어먹다(×)

②

• **뜯게질** : 해지고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빨래할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일. ‘뜯게질’은 어간(뜯-)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게)가 붙어서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뜨게질(×)

[참고] 뜨게질 : 옷이나 장갑 따위를 실이나 털실로 따서 만드는 일. 뜨개질(×), 뜨개질(×)

• **세째 → 셋째**

유사한 형태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한 가지 형태만 쓰는 규정에 따라 ‘세째’가 아닌 ‘셋째’만 표준어로 삼는다.

• **수평아리**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며, 접두사 ‘수-’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므로 ‘수평아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수병아리(×)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고,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단어는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에 한하며, 접두사 ‘숫-’을 붙이는 단어는 ‘숫양, 숫염소, 숫쥐’에 한한다.

• **애닭다 → 애달프다**

‘애닭다’는 사어(死語)이므로, ‘애달프다’가 바른 표현이다. ‘애닭으니, 애닭아서, 애닭은(/애달운)’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표준어 규정 제20항을 보면,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古語)로 처리하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봉, 낭, 설겅다, 머귀나무, 오얏’ 등은 각각 ‘난봉, 낭떠러지, 설거지하다, 오동나무, 자두’가 바른 표현이다.

③

• **치켜세우다** : ㉠ 웃기이나 눈썹 따위를 위쪽으로 올린다. ㉡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

[참고] ‘치켜세우다’와 ‘추켜세우다’, ‘추켜올리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1) ‘치켜세우다’는 ‘웃기이나 눈썹 따위를 위쪽으로 올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로, ‘치켜세워, 치켜세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예) 사람들은 모두 웃기를 치켜세우고 있었다.

(2) ‘추켜세우다’는 ‘위로 치올리어 세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로, ‘추켜세워, 추켜세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예) 눈썹을 추켜세우다

(3) ‘추켜올리다’는 ‘위로 솟구어 올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예) 그녀는 자꾸 흘러내리는 치맛자락을 추켜올리며 걸었다.

(4) ‘치켜올리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 **사글세** : 월세(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 월세방(월세를 받고 빌려 주는 방). 샷월세(×)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5항에 따라, ‘사글세’가 올바른 표현이다.

• **설거지** :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설겅이(×)

‘설거지’는 원래부터 명사인 단일어로 본다. 이에 관하여 ‘설겅다’를 버린 것은 ‘설겅어라, 설겅으니, 설겅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안 쓰여 어간 ‘설겅-’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겅-’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표기도 ‘설겅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한다.

• **수강아지**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고,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단어이다. 숫강아지(×)

④

• **보조개** : 말하거나 웃을 때에 두 볼에 움푹 들어가는 자국. ‘보조개’와 ‘볼우물’은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 **솟양**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나, 예외적으로 ‘솟양, 숫염소, 숫쥐’는 사이시옷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솟양’이 올바른 표기이다. 수양(×)

• **광우리 → 광우리** : 대, 싸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여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 광우리(×)

• **강남콩 → 강남콩**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강남콩’이 올바른 표기이다. 강남콩(×)

2. 다음 중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번듯하고 뿔뿔하여 흥잡히거나 굶힐 것이 없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순수하고 천진스러운 인간미가 넘치는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남)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다.(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아내가 달아났기 때문에)

듣으니 ㉡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6월 25일 서울시 9급

2016. 06. 2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한 달 이상이 되는 동안)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긱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보거나 듣는 즉시 곧바로 깨달음)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황수건의 순박한 성품을 '열매'에 빗대어 표현함)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① ㉠: 황수건의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② ㉡: 황수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 포도 는 장사 밀전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다.
- ④ ㉣: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정답 ① 현대소설-문맥적 의미

황수건이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유제]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황수건은 '나'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 ② 황수건은 계속된 실패를 극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 ③ '나'는 소문을 통해 황수건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 ④ '나'는 황수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답 ②

②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원, 참외 장사 등에 실패하고 아내마저 달아난 상황을 보여줄 뿐, 이를 극복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① 참외와 포도를 선물하는 황수건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황수건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 장사에 실패한 것과 아내가 가출한 사실을 들었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황수건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장사 밀전을 주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태준, 「달밤」

- 1. 핵심정리
 - 1) 갈래 : 단편소설
 - 2) 배경 : 서울 성북동
 - 3)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4) 제재 : 세상사에 적응 못하는 못난이의 삶.
 - 5) 주제 : 각박한 현실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삶의 모습.

6) 인물 :

- 나 : 황수건을 동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소설 속의 서술자.
- 황수건 : 우둔하고 천진한 품성을 지닌 남자. 학교 급사, 보조 신문 배달원, 참외 장사 등을 하지만 제 대로 하는 것이 없어 모두 실패한다. 끝내 아내마저 도망가자 달을 쳐다보며 우수에 젖는 주인공.

2. 줄거리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는 시냇물 소리와 싸아 하는 술바람 소리 때문에, 그리고 황수건이란 사람을 만나고부터

이곳이 시골이란 느낌을 받는다.

우둔하고 천진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은 아내까지 거느리고 형님의 집에 얹혀살면서 학교 급사로 일하던 중 일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쫓겨난다. 그는 현재 원(정식) 배달원이 떼어 주는 20여 부의 신문을 배달하고 월 3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보조 배달원으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원 배달원이 되는 것이다.

그는 '나'와 가깝게 지내면서, 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두(牛痘)를 맞지 말라, 개를 키우지 말라 등 여러 가지 실속 없는 참견을 한다. 그러나 그의 순진한 성격을 아는 '나'는 그의 참견을 끝까지 받아 준다.

그런데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으나 원 배달은커녕 '똑똑치가 못하니까'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떨어지고 만다. 황수건은 '나'에게 하소연을 한다. '나'는 그의 처지가 하도 딱해서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돈 3원을 준다. 한동안 그는 참외도 가져오고 포도도 훔쳐 오는 등 '나'의 집에 잘 들렀으나, 참외 장사도 실패하고 끝내는 동서(同姓)의 등쌀을 견디지 못한 그의 아내마저 달아난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달만 쳐다보며 서툰 노래를 부른다.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나'는 그를 부를까 하다가 그가 무안해 할까봐 얼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다. 쓸쓸한 달밤이다.

3. 다음 중 음운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옳다'는 [올타]로, '옳지'는 [올치]로 발음된다.
- ② '주다'와 어미 '-어라'가 만나 '줘라'가 되었다.
- ③ '막혀'는 [마켜]로, '맞힌'은 [마친]으로 발음된다.
- ④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나 '가서'가 되었다.

정답 ④ 음운의 변동

①,②,③은 음운축약, ④는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① 'ㅎ(ㄱ, ㄴ)'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② 모음 'ㅛ,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 -/었 -'이 어울려 '나/겨, /'으로 될 적 에는 준 대로 적는다.

③ 받침 'ㄱ(ㄱ), ㄷ, ㅂ(ㅃ), ㅈ(ㅉ)'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 ㅎ]으로 발음한다.

④ 모음 'ㅏ, ㅑ'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는 형식에서는 '아/어'가 줄어들며, '-았/-었'이 붙는 형식에서는 '아/어'가 줄어진다.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 ②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들 눈에 떨 뿐 한적했다.
- ③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 ④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2016. 06. 2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② 품사의 구분

①,③,④는 관형사, ②의 '한둘'은 수사이다.

[참고] '한둘'은 수사, '한두'는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나 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합성어이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적는다.

[참고] 관형사와 수사

관형사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수 없는 불변어로, 오직 체언을 수식하는 데에만 쓰이는 품사이다. 하지만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로, 체언으로 사용되며 조사나 어미가 붙을 수 있다.

5. 다음 중 고유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느매기: 물건을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 ② 비나리치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 ③ 가리사나: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정답 ②

② 비나리치다: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함.

'비나리'는 원래 남사당패 놀이의 성주풀이 곳에서 곡식과 돈을 상 위에 받아놓고 외는 고사문이나, 그것을 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후 사람들의 행복을 비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을 '비나리하다'라고 한다. 한편 '비나리치다'라고 하면 '아첨하여 환심을 사다'는 뜻이므로 구별해 써야 한다. 또한 구구한 말로 남에게 무엇을 청하는 것을 '비라리'라고 한다. 어감은 비슷하지만 뜻은 상반되는 말이다.

- ① 노느매기: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누어진 몫. 나누매기(x), 나누매기(x)
- ③ 가리사나: ㉠사물을 판단할 만한 지각(知覺). ㉡사물을 분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
- ④ 던적스럽다: 하는 짓이 보기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유] 단작스럽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벌브(bulb), 옐로우(yellow), 플래시(flash), 워크숍(workshop)
- ② 알콜(alcohol), 로봇(robot), 보트(boat), 씨클(circle)
- ③ 밸런스(balance), 도너츠(doughnut), 스위치(switch), 리더십(leadership)
- ④ 배지(badge), 앙코르(encore), 콘테스트(contest), 난센스(nonsense)

정답 ④ 외래어 표기법

- ① 옐로우 → 옐로(yellow)
- ② 알콜 → 알코올(alcohol), 씨클 → 서클(circle)
- ③ 도너츠 → 도넛(doughnut)

①

- 벌브(bulb) : 사진기 셔터 눈금의 하나. 불브(X)
- 옐로우 → 옐로(yellow)
'오우[ou]'는 '오'로 적는다. 따라서 '옐로우'는 '옐로(yellow)'로, '보우트'는 '보트(boat)'로, '뉴스위크'는 '뉴스위크(Newsweek)'로, '로션'은 '로션(Lotions)'으로 표기한다.
- 플래시(flash) : ㉠ 손전등, ㉡사람들의 주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목', '주시'로 순화. [f]는 모음 앞에서는 '프',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프'로 표기한다. 프래시(X), 플래쉬(X), 프래쉬(X)
- 워크숍(workshop) : 연구 집회. '공동 수련', '공동 연수'로 순화. 워크샵(X), 워크샵(X)
'숍(shop)'은 영국식 발음을 반영하는 표기이고, '샵'은 '미국식 발음'을 반영하는 표기인데, 영어의 외래어 표기는 영국식 영어를 주로 채택하고 있어, 'shop'를 '샵'이 아니라 '숍'으로 적는다.

②

- 알콜 → 알코올(alcohol)
이 단어는 발음이 [ælkəhɒl]이다. 이에 따르면, '앨커헬'이 옳은 표기이나, 그동안 써온 관례를 존중하여 '알코올'을 올바른 표기로 정하였다. 특히 세 음절로 표기한 것은 원말의 음절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알코홀(X), 알콜(X), 앨코올(X), 앨코홀(X)
- 로봇(robot)
외래어 표기법에,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로봇(robot), 로켓(rocket), 라켓(racket)' 등이 옳은 표기이다. 로보트(X), 로보트(X)

• 보트(boat) : 보우트(X)

- '오우[ou]'는 '오'로 적는다. 따라서 '보우트'는 '보트(boat)'로 표기한다.
- 씨클 → 서클(circle) : 같은 이해관계나 같은 직업, 취미 따위로 모인 사람들의 단체. '동아리', '모임'으로 순화. 씨클(X)

③

- 밸런스(balance) : 균형(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 바란스(X), 발란스(X)
- 도너츠 → 도넛(doughnut) :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t]는 받침으로 적는다. 도너츠(X), 도너스(X), 도우넛(X)
- 스위치(switch) : '여닫개'로 순화. 스위치(X)
- 리더십(leadership) : 우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력'으로 순화. [ʃ]가 [i] 모음 앞에 올 때에는 '시'로 적는다. 따라서 '-ship'은 '-쉽'이 아니라 '-십'으로 표기한다.

④

- 배지(badge) : 신분 따위를 나타내거나 어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옷이나 모자 따위에 붙이는 물건. 이 단어는 발음이 [bædʒ]이다. 따라서 '배지'로 표기해야 옳다. 뱃지(X), 뺏지(X)
- 앙코르(encore) : ㉠ 출연자의 훌륭한 솜씨를 찬양하여 박수 따위로 재연을 청하는 일. '재청'으로 순화. ㉡ 호평을 받은 연극이나 영화 따위를 다시 상영하거나 방송하는 일. 앙코르(X), 앙콜(X), 앙콜(X)
- 콘테스트(contest) : 용모, 기능, 실력 따위를 겨루기 위하여 열리는 대회. '경기', '경연', '대회'로 순화. 콘테스트(X)
- 난센스(nonsense) :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평범하지 아니한 말 또는 일. '당찮은 말', '당찮은 일'로 순화. 난센스(X), 넌센스(X)



2016. 06. 2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7. 다음은 신문 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해명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보도	(1)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2)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해명 자료	(1)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 (2)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 ①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2)에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②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③ 해명 자료 (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 ④ 해명 자료 (2)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신문보도 (2)에서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명자료 (2)에서는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단독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을 뿐 여전히 발급은 불가한 것이다.

- ① 신문 보도 (1)의 개략적인 내용을 (2)에서 상세히 풀어 설명하였다.
- ② 신문 보도 (2)에서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원은 공공아이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③ '-나'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서, 나열되는 사물 중 하나만이 선택됨을 나타낸다. 해명 자료 (1)의 밑줄 친 부분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이 대등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 따라서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증명)이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8.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디글이[디그시], 흠이불[흠니불]
 - ② 똥는[똥는], 밝히다[발키다]
 - ③ 할다[할따], 넓죽하다[넙쪽카다]
 - ④ 흠만[흠만], 동원령[동 : 원녕]

정답 ① 표준발음법

② 똥는[똥는], ③ 넓죽하다[넙쪽카다], ④ 흠만[흠만]

①

◆ 디글이[디그시]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ㆁ,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글이[디그시], 디글을[디그슬], 디글에[디그세]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지웃에[지으세]
치웃이[치으시], 치웃을[치으슬], 치웃에[치으세]
키웁이[키으기], 키웁을[키으글], 키웁에[키으게]
티을이[티으시], 티을을[티으슬], 티을에[티으세]
피윽이[피으비], 피윽을[피으블], 피윽에[피으베]
히을이[히으시], 히을을[히으슬], 히을에[히으세]

◆ 흠이불[흠이불 → 흠니불 → 혼니불]
받침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흠이불]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흠니불] → 받침 'ㄷ(ㅌ, ㅊ, ㅋ, ㆁ, ㅌ, ㅍ, ㅎ)'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 [혼니불]

②

◆ 똥는[똥는 → 똥른]
'ㄴ, ㄹ'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또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밝히다[발키다]
받침 'ㄱ(ㄷ), ㄷ, ㅌ(ㄹ), ㅈ(ㅊ)'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밝히다[발키다], 밝혀[발겨] 등

③

◆ 할다[할따]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또한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넓죽하다[넙쪽카다]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한다. 다만, '넙죽하다[넙쪽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의 '넙-'은 [넙]으로 발음한다. 또한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ㄱ(ㄷ)'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 두 음을 합쳐서 [ㅋ]으로 발음한다.

④

◆ 흠만[흠만 → 흥만]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또한 받침 'ㄱ'은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 동원령[동:원녕]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비음화)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뇨],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똥녁]
공권력[공권녁]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6월 25일 서울시 9급

2016. 06. 2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전개된다.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8 - 적군 묘지(敵軍墓地)에서'

- 핵심정리
 - 1) 성격 : 관념적, 윤리적, 서정적, 추도적
 - 2) 제재 : 적군의 묘지(죽음)
 - 3) 어조 : 비장하고 격정적인 어조
 - 4) 상상 : 서술적 상상
 - 5) 주제 : 적군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통한
 - 6) 특징 : 기교를 배제한 관념의 직설적 표출
 - 7) 출전 : <초토의 시>(1956)
- 어휘 풀이
 - 초토 : 불에 타서 검게 된 흙. 여기서는 '무덤', '폐허가 된 전쟁터'를 의미
 - 때 : 흙까지 아울러 뿌리째 떠낸 잔디
 - 그래도 양지 바른 ~ 떼마져 입혔거니 : 비록 적군일지라도 다 썩어가는 주검까지 정성을 기울인 화해와 너그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죽음은 ~ 신비로운 것이로다. : 주검 앞에서는 미움이나 사랑의 어느 한쪽에 편들지 못할 신비한 무엇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 구절 풀이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적군 병사들의 주검]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통일을 이루지 못한 한을 지님(연인의 정)].

- 적군 병사의 죽음 애도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뤄[이념적 대립에 의한 적대감]
방아쇠[전쟁의 비극적 소재. 냉혹함]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전쟁의 비극과 참혹성 감각적 제시]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도회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 드문 산골]를 골라[숭고한 동
족애와 휴머니즘]
고이 파묻어 때[뿌리째 떠낸 잔디]마저 입혔거니[비록 적군일지라도 다 썩어가는
주검까지 정성을 기울인 화해와 너그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적군 병사의 무덤을 만들어 줌(화해)-관용적, 인도적 태도(3연의 깨달음의
실천적 행위)
죽음[대립을 화해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시어]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
랑[민족애와 기독교적 관용]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것이로다[주검 앞에서는 미움이나 사랑의 어느 한쪽에 편들지 못
할 신비한 무엇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 죽음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념적 대립의 허망함 표현

12.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동문	㉠ 아이가 밥을 먹었다.	㉡ 마당이 넓다.
	↓	↓
사동문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 인부들이 마당을 넓 혔다.

- ① ㉠, ㉡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 ② ㉠, ㉡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 ③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 ④ <보기>를 보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할 수 있군.

정답 ③ 문장론 - 사동 표현의 이해

③ ㉠의 '먹다'는 동사이지만, ㉡의 '넓다'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 모두 사동화할 수 있다.

① ㉠은 보조적 연결어미 '-게'+보조용언 '하다'가 붙어서 되는 통사적 사동 표현이다. ㉡은 형용사의 어근 '넓-'에 사동접사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적 사동법이다.

※사동 표현의 유형

- (1) 파생적 사동법은 '동사, 형용사의 어근'+사동 접미사(-이-, -히-, -리-, -기-, -우-, -구-, -추-)
- (2) 통사적 사동법은 보조적 연결어미 '-게'+보조용언 '하다'가 붙어서 되는 사동 표현이다.

② 주동문(㉠)의 주어 '아이가'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되었고, 주동문(㉡)의 주어 '마당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바뀌었다.

※사동 표현의 특징

- (1) 문장 성분이 바뀐다.
 - ① 주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주동문의 주어 → 사동문의 목적어
예 동생이(주어) 웃는다. → 동생을(목적어) 웃긴다.
 - ② 주동사가 타동사인 경우: 주동문의 주어 → 사동문의 부사어
예 아기가(주어) 젖을 먹는다. → 엄마가 아기에게(부사어) 젖을 먹인다.
- (2) 동사가 사동사로 바뀐다.
- (3) 일부 용언은 사동 접미사를 두 개 겹쳐 쓰기도 한다. (이중 사동)
예 서다 → 서이우다 → 세우다, 자다 → 자이우다 → 재우다
• 특이한 사동 접미사
예 없다 → 없애다 (-애-) / 젖다 → 적시다 (-시-)

④ ㉠의 주동문 서술어 '먹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이지만 ㉡의 사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뿐만 아니라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릿수 서술어이다.
㉢의 주동문 서술어 '넓다'는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릿수이고, ㉣의 사동문 서술어 '넓혔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이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 ②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로도 적을 수 있는 한자어이다.
- ③ 고무, 담배, 가방, 빵, 냄비와 같은 단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 버린 귀화어이다.
- ④ 눈갈, 아가리, 주동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卑語)에 속한다.

정답 ① 어휘의 갈래

① '하늘, 바람'은 고유어이지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는 한자어이다.
• 심지어(甚至於 : 甚 심할 심/至 이를 지/於 어조사 어)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 어차피(於此彼 : 於 어조사 어/此 이 차/彼 저 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 주전자(酒煎子 : 酒 술 주/煎 달일 전/子 아들 자) 물이나 술 따위를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6월 25일 서울시 9급

2016. 06. 2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②

• **학교(學校 : 學 배울 학/校 학교 교)**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공장(工場 : 工 장인 공/場 마당 장)**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

• **도로(道路 : 道 길 도/路 길 로)**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 **자전거(自轉車 : 自 스스로 자/轉 구를 전/車 수레 거)** 사람이 타고 앉아 두 다리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가게 된 탈것. 한자어 '자전거(自轉車)'에서 셋째 음절 '거(車)'는 수레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이 한자는 음(音)이 들어서 '차'로도 발음이 가능한데, 그때는 자동차의 의미가 강할 때, 그렇게 읽는다. 따라서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는 '수레'의 의미인 '거'로 읽어야 올바른 표현이다. 자전거(x)

• **자동차(自動車 : 自 스스로 자/動 움직일 동/車 수레 차)**

③ 외래어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우리말화한 것을 따로 '귀화어(歸化語)'라고 한다.

• '고무'라는 말은 일본어 ゴム에서 왔으며, 이는 중세·고대의 유럽어 gum(영어) · gomme(프랑스어) · Gummi(독일어) 등에서 온 말이다.

• '담배'는 포르투갈어 'tabacco'에서 왔다. 옛날에는 '담배고'로 쓰이다가 끝의 '고'가 줄어들면서 단어 자체도 변형돼 '담배'로 굳어진 말이다.

• '가방'의 어원은 네덜란드어 'kabas'다. 이를 일본에서 '가방(かばん)'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뿌리내린 것이다. 지금은 외래어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우리말 속에 완전히 동화된 말이다.

• '빵'은 포르투갈어 'pao'(발음은 '빠웅')에서 유래한 말이다. 미국보다 앞서 일본과 교역을 해온 포르투갈의 말이 영어의 'bread'보다 먼저 일본에 전해져 '방(パン)'으로 쓰이던 게 우리나라로 넘어와 '빵'이 됐다.

• '냄비'는 일본어 '나베(なべ,鍋)'에서 온 말이다. 우리 전래의 솥과는 달리 밑바닥이 평평하게 생긴 일본식 조리 기구를 가리킨다. 과거에는 '남비'가 표준어였으나 1989년 새로운 표준어사정 원칙이 나오면서 '냄비'를 표준으로 했다.

[참고]

• '구두' 역시 일본어 '구쓰(くつ,靴)'가 변한 말이다. 구두가 들어온 초기에는 서양신이라 해서 양화(洋靴)라 했는데, 일본에서 이를 '구쓰'라 불렀던 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구두'로 불린 것이다.

• '가마니'는 곡식, 소금 등을 담기 위해 짚을 엮어 큰 자루처럼 만든 용기를 말한다. 가마니는 또 그 자체로 '한 가마니, 두 가마니' 할 때처럼 양이나 무게를 헤아리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 역시 우리 고유어가 아니라 일본의 '가마스(かます)'에서 비롯된 말이다. 가마니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섬'을 썼다. 그런데 '섬'은 새끼와 짚을 사용해 곡식을 담기엔 성긴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꼼꼼하게 짜인 가마니에 밀려 섬은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하지만 단위명사로 남아 있어 지금도 가마니와 섬이 함께 쓰인다. 한자어로는 '석(石)'이라고도 하며 모두 같은 의미다.

• '붓'도 본래부터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중국어 '뻬(筆)'가 어원이다. 우리 한자음으로는 '필'인 이 한자는 중국발음으로는 '뻬'에 가깝고(현행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비') 더 멀리 고대에는 '붓'과 비슷하게 발음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중국에서 물건이 전래되면서 말도 따라 들어와 오랜 세월 변형되지 않은 채 한편에서 순우리말처럼 굳은 것이다.

※ 귀화어:

- 한자어 귀화어: 붓, 먹, 종이, 김치, 배추, 고추, 어차피
- 몽고어 귀화어: 말, 송골매, 수라상
- 일본어 귀화어: 고무마, 구두, 냄비, 가마니, 가방
- 서구어 귀화어: 고무, 담배, 빵, 남포동

④ '비어(卑語)'는 점잖지 못하고 천(賤)한 말. 상스러운 말. 사물(事物)을 낮보고 쓰는 말들이다. '눈'을 '눈깔', '입'을 '아가리' 또는 '주둥아리', '목'을 '모가지', '머리'를 '대가리', '배'를 '배때기', '뺏사람'을 '뺏놈'이라고 부르는 따위 등이다.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 철수 밥 먹는다.
- ㉡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 ㉢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고 한다.
- ㉣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밝혀졌다.

① ㉠에서 '철수',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각각 주어, 부사어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③ ㉢에서 '오늘 내가 본'은 관형어 기능을 하며 절로 실현되어 있다.

④ ㉣에서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정답 ③ 문장론

③ 관형절은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의), -는, -(으)ㄹ, -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에서 '본'은 '보+ㄹ(관형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관형절이다.

① '단어'는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이고,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이다. ㉠의 '철수'와 '밥'은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어이고, 각각 '철수(가)', '밥(을)'이라는 주어와 목적어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절'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안긴문장을 말한다. ㉡에서 '그 사람이'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안긴문장이 아니고 주어로서의 성분 기능을 한다. '그런 심한 말을'은 '심하+ㄹ(관형사형 어미)'의 구조로 관형절이며 관형어로서의 성분 기능을 한다.

④ '명사절'은 '용언의 어간+명사형 어미(-의), -기)'가 붙어 만들어진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에서 '독지가였음이'는 명사절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여 주어로서의 성분 기능을 한다.

1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사원 여러분, 이번 중동 진출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만 회사가 삽니다.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심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 ① 登高自卑
- ② 角者無齒
- ③ 騎虎之勢
- ④ 唇亡齒寒

정답 ③ 한자성어의 쓰임.

③의 '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① **登高自卑(登高自卑 : 登 오를 등/高 높을 고/自 스스로 자/卑 낮을 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말로, ㉠ 일을 하는데는 반드시 차례를 밟아야 한다는 말. ㉡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 [속]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千里之行始於足下), 모든 일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② **각자무치(角者無齒 : 角 뿔 각/者 능 자/無 없을 무/齒 이 치)** 뿔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6월 25일 서울시 9급

2016. 06. 2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있는 놈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모든 복을 겸하지는 못함.

③ 기호지세(騎虎之勢 : 騎 말 탈 기/虎 범 호/之 갈 지/勢 형세 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를 이르는 말. [동] 기수지세(騎獸之勢), 기호난하(騎虎難下).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 唇 입술 순/亡 망할 망/齒 이 치/寒 찰 한)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 가까운 사이의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또는 서로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관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 3개의 민간지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간지는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1920년 창간된 『시사신문』은 이듬해 봄에 폐간되었고, 1924년 창간한 『시대일보』는 『중외일보』(1926), 『중앙일보』(1933), 『조선중앙일보』(1933)로 몇 차례 제호를 바꾸면서 발행되다가, 1936년 9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정간되어 끝내 복간되지 못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1940년 8월 일제의 강제 폐간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 1930년대

• 영상섭의 「상대」는 1931년 1월 1일부터 그해 8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로, 만석꾼인 조씨 일가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각기 다른 가치관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린 소설일 뿐 아니라, 당대 조선의 사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의 사건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세대 간의 서로 다른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가족사 소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이광수의 「흙」은 1932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작품으로 『무정(無情)』과 함께 이광수의 대표작의 하나로 평가된다. 당시에 성행한 농촌계몽운동에서 취재된 인도주의적 경향이 짙으며, '살여울'이라는 무지와 빈궁과 핍박으로 억눌려 있는 농촌을 유복하고 아름다운 이상촌으로 건설해 보려는 주인공 허송의 희생적인 노력과 꿈이 작자의 민족주의사상의 가장 강렬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농촌계몽소설인 이 작품은 도시의 인텔리층에 속하는 주인공이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 가정을 버리고 농촌에 들어가 농민과 함께 소박한 생활을 하며 그들을 교화하는 과정을 그려보임으로써 도시를 악의 그것으로 보고 농촌을 이상향으로 보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어 톨스토이의 영향을 크게 받은 듯하다.

•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1938년 1월부터 9월까지 <조광(朝光)>에 연재된 채만식의 장편 소설로 처음 발표할 당시의 제목은 '천하태평춘'이었다. 1930년대 일제 시대의 지주이자 고리 대금업자인 윤 직원 영감의 몰역사 의식과 그 집안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판소리 사설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문체가 소설 읽기의 재미를 더해 준다. 서술자는 판소리의 창자처럼 '-입니다'식의 경어체를 빌려 독자과 가까운 위치에서 작중 인물을 조롱하고 평한다. 또한 '가족사 소설'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이다.

㉡ 1940년대

1940년대 일제는 창씨 개명(創氏改名), 신사 참배(神社參拜)를 강요하고, 우리말과 글의 사용을 금하는 등 황국(皇國) 신민화 정책을 펴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를 파괴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일간지가 폐간되고, 『인문평론』, 『문장』 등의 문예지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참고] 동인지 간행 순서

창조(1919) - 개벽(1920) - 폐허(1920) - 장미촌(1921) - 백조(1922) - 금성(1923) - 영대(1924) - 조선문단(1924) - 해외문학(1927) - 삼천리(1929) - 문예공론(1929) - 시문학(1930) - 문예월간(1931) - 삼사문학(1934) - 문학(1934) - 조선문학(1935) - 시원(1935) - 조광(1935) - 시인부락(1936) - 문장(1939) - 인문평론(1939)

※[참고] 근대 신문의 태동과 성장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신문이 발행되기 이전인 조선조 전기 또는 15세기 무렵부터 조보(朝報) 또는 기별(奇別)이라 불리는 관보 성격의 필사신문이 있었다. 조보는 승정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각 관청의 기별서리(奇別書吏)들이 손으로 베껴서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과 양반 등에게 보내는 관보적 성격의 문서였는데, 국왕의 동정과 관리의 임면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반 사회기사의 성격을 띤 것도 있었다. 조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발행되기 전까지 존재하다가, 1894년 정부가 정식으로 인쇄된 『관보』를 창간하고 이듬해 승정원의 공사청을 폐지하면서 없어졌다.

16. <보기>의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 ㉠ 「상대」, 「흙」, 「태평천하」 등 다양한 장편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 이광수의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등장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 ㉣ 『인문평론』, 『문장』 등 우수한 문학잡지들과 한글 신문 등의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중」과 같은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현대문학사

㉠ 1910년대

• 이인직의 「혈의 누」는 1906년 7월부터 10월까지 <만세보>에 연재된 이인직의 첫 번째 장편소설로서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신소설로 평가된다.

• 이해조의 「자유중」은 '토론소설(討論小說)'이라는 명이 붙은 신소설로서 1910년에 출간하였다. 몇 명의 여인네가 시대의 풍속과 가치관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주제면에서 신소설 중 가장 정치성이 강한 작품이다.

㉡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된 후 1918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여겨지며 당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이라 평가받는 이 소설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민족의식 그리고 박영채와 이형식과 김선형 사이에서 보여지는 자유연애와 삼각연애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최초의 근대소설로 평가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근대적 의식과 자아의 각성이 보인다는 점, 서술이 비약적이고 추상적인데서 나아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이 되었다는 점,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개성적인 인물이 설정된 점, 선악의 이분법적 도식에서 탈피했다는 점, 구어체에 접근했다는 점 등이다.

㉢ 1920년대

• 동인지 : 창조(1919) - 개벽(1920) - 폐허(1920) - 장미촌(1921) - 백조(1922) - 금성(1923) - 영대(1924) - 조선문단(1924) 등
• 3·1운동 후 1920년부터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일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6월 25일 서울시 9급

2016. 06. 2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우리나라 최초 근대 신문은 1883년 10월 31일에 창간된 『한성순보』이다. 이 신문은 정부기구인 박문국(博文局)에서 발간하였으나 당시 개혁파들이 국민에게 외국의 사정을 널리 알려 개화사상을 고취시키려는 데 큰 목적을 두었다. 『한성순보』는 창간 이듬해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폐간되었으나, 1886년 1월 25일 다시 『한성주보』를 창간하여 1888년까지 발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이다. 이 신문은 한글전용과 띄어쓰기를 단행하여 그 후의 민간 신문 제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뒤이어 1898년에는 『태국신문』, 『황성신문』 등의 일간지들이 창간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인이 발행하는 일본어 신문이 늘어났고, 한국인이 발행하는 친일 신문도 생겨났다.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으로는 1881년 부산에서 창간된 『조선신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895년에 창간된 『한성신보』와 1904년 3월 10일 창간된 『대한신보』, 1904년 4월 18일 창간된 『대동신보』가 대표적이다. 한국인 발행 친일지로는 1906년 1월 6일 창간된 『국민신보』, 1907년 7월 18일 창간된 『대한신문』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04년 영국인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항일운동의 선봉에서 서서 민족진영을 대변하는 논조를 폈다. 이 신문은 국한문판, 한글판 및 영문판을 동시에 발간하는 한말 최대의 민족지였으나, 1910년 국권 피탈 후 일제에 의해 폐간되었다. 3·1운동 후 1920년부터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 3개의 민간지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간지는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수많은 압수와 정간처분을 당했으며 물론 필화(筆禍)로 많은 언론인들이 고통을 겪었다.

1920년 창간된 『시사신문』은 이듬해 봄에 폐간되었고, 1924년 3월 창간한 『시대일보』는 『중외일보』(1926. 11. 15), 『중앙일보』(1933. 11. 27), 『조선중앙일보』(1933. 11. 15)로 몇 차례 제호를 바꾸면서 발행되다가, 1936년 9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정간되어 끝내 복간되지 못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1940년 8월 일제의 강제 폐간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일제는 한국인에게 신문발행의 허가를 극도로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허가해준 신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사전·사후 탄압을 자행하였고, 사법처분으로 언론인 구속 등이 빈번하였다. 행정처분에 의한 사전처분은 ①간담(鑿談), ②주의(注意), ③경고(警告), ④금지(禁止)의 순으로 제도화되어 있었고, 제작된 신문에 대한 사후 탄압으로는 ①삭제(削除), ②발매금지 및 압수, ③발행정지(정간), ④발행금지(폐간)의 4단계가 있었다.

삭제처분은 문제된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자행된 탄압 방법이었다. 발행금지 및 압수는 인쇄가 끝난 신문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한 때에는 1년 평균 매주 한 번씩 인쇄된 신문이 압수되어 민족지는 경영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었다. 발행정지는 정간으로서 일제강점기 동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신보』가 각각 1회의 발행정지를 당했다. 발행금지는 폐간으로서 신문지법에 의해 허가되었던 잡지 『신생활』이 1923년에, 『개벽』이 1926년에 각각 폐간되었고, 1940년 8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자진폐간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 강압에 의한 강제폐간이었다.

17. <보기>는 비치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이다. 다음 중 각 뜻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에】

- ①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 ②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인다.
- ③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인다.
- ④ 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 ⑤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인다.

2 【…에/에게 …으로】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3 【…에/에게 …을】

- ① 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 ②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넉넉히 깨우쳐 주다.

- ① 1 ①: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 ② 1 ③: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 ③ 2: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 ④ 3 ①: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정답 ② 다의어의 의미.

- ②의 '산이 호수에 비쳤다'는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인다'의 의미로 빠르게 쓰였다.
- ①의 '안이 비친다'는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인다'의 의미로서, 1 ⑤의 예로 적절하다.
- ③의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는 3 ②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넉넉히 깨우쳐 주다'의 예로 적절하다.
- ④의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는 2의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18.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는데 'ㄱ'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ㄱ, ㄴ, ㄹ, ㅅ, ㅇ'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ㅋ, ㆁ, ㆅ, ㄷ, ㅌ, ㅍ, ㅊ, ㅍ, ㅎ' 총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중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 ④ 연서(連書)는 'ㅇ'을 이용한 것으로서 예로는 '빙'이 있다.

정답 ④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④ 연서(連書)는 니서쓰기(이어쓰기) : 연서(連書). 입술소리 아래에 'ㅇ'을 이어쓰면 입술이 가벼운 소리(순경음(脣輕音))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순음(ㄹ, ㅍ, ㅍ, ㅍ)아래에 'ㅇ'을 이어쓴다. 'ㅍ'은 고유어 표기에 쓰이고, 'ㅍ, ㅍ, ㅍ'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쓰였다.

※자음의 기본자와 가획자 및 이체자

이름	기본자	상 형	가획자	이체자
아음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ㅋ	ㆁ
설음	ㄴ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ㄷ ㅌ	ㄹ(반설음)
순음	ㄹ	입의 모양(象口形)	ㅍ ㅑ	
치음	ㅅ	이의 모양(象齒形)	ㅆ ㅈ	ㅊ(반치음)
후음	ㅇ	목구멍 모양(象喉形)	ㅎ ㅎ	

- ①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은 설음(ㄴ)이다.
- ② 가획의 원리로 만든 음운은 'ㅋ, ㆁ, ㆅ, ㅌ, ㅍ, ㅑ, ㅆ, ㅈ, ㅊ, ㅎ' 총 8개이고, 'ㅇ, ㄹ(반설음), ㅊ(반치음)'은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이체자이다.
- ③ 문자의 수는 초성 18자, 중성 11자로, 모두 28자이다. 중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초성자를 중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